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눅15:20-24)

설교 조상용 담임목사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만이 참된 사랑이란 의미다. 하나님에게서 사랑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사랑을 알 수 있고, 또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참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 집을 나간 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하나님은 이 탕자의 아버지를 통해 당신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살펴보자.

1. 하나님의 사랑은 기다리는 사랑입니다.

(20절 上) "...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알아보았다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날마다 기다리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나간 즉시 아버지가 한 일은 문 밖에서 기다라는 것이었다. 남이 뭐래도 포기하지 않고 아들을 기다린 것이다. 이렇게 사랑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며 기다려주신다. 만일 바로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우리 중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육신의 부모는 나를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신다.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2. 하나님의 사랑은 받아주는 사랑입니다.

(20절 下) "...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자, 아버지는 아들에게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춘다. 이것은 아들의 잘못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환대하고 수용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눈에서 아들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아들인 것이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그 어떤 죄인이라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신다. 탕자가 아버지 품에 안겼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하나님은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주시는 분이시다.

3. 하나님의 사랑은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자신의 소유를 아끼지 않는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주면서 아들의 명예를 회복시키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며 권한을 위임하고, 발에 신을 신기면서 아들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탕자는 이전의 모습은 간 곳 없고, 완전히 아들로써 모든 것이 회복이 되었다. 이렇게 자녀가 잘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회복시켜주기 위해 기꺼이 대가를 지불했다. 꼭 금전적인 것만이 아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아들을 위해 내어주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제 죄인의 모습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회복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다. 인생의 행복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믿고 사는데 있다(요3:16).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눅15:20-24)

1. 마음 열기 - 나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요?

2. 경배와 찬양 - 아바 아버지

아 바 아버-지 - 아 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 - 고 바 라보 - 시는

아 바 아버-지 - 아 바 아버-지 - 아 바 아버-지 나를

도 우시 - 고 힘 주시 - 는 아 버 지 주는

내 맘-을 고 치- 시 고 볼수 없는상- 처 만 지- 시 네

나를아- 시 고 나를이 해하- 시 네 - 내영 혼새롭게 세우- 시 네

3. 말씀 나누기 - 먼저 성경본문과 말씀요약을 읽으세요.

(1) 성경본문과 주일설교를 통해, 특별하게 다가온 말씀이나 은혜 받은 교훈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2)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받아 주시고, 십자가에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금까지 받은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3) 이번 새생명축제때 태신자들을 초청해 아버지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새생명축제를 어떻게 준비했는지 함께 이야기 해 봅시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태신자들에게 계속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전할지 이야기 해 봅시다.

4. 사역나누기

(1) 성령 충만한 목장과 돌봄이 필요한 목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2) 우리 목장이 품은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3) "공동체 성경읽기"를 위해, "새생명축제"에 방문했던 태신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함께 기도합니다